



DEFY SKYLINE C.X 에디션: 컬렉티브 호롤로지와 함께 DEFY SKYLINE 을 완벽하게 재해석한 레트로 스타일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이다

스위스 르 로클 & 캘리포니아 벤추라, 2024 년 11 월 19 일: 컬렉티브 호롤로지와 제니스가 다시 한번 협력하여 “간결한” 접근 방식으로 DEFY Skyline 을 20 세기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의 정수로 재해석한 특별한 리미티드 에디션을 제작했습니다.

수집가를 위해, 수집가에 의해 탄생한 타임피스를 만나보세요. 2018 년 협업을 통한 시계 개발을 위한 커뮤니티로 시작한 컬렉티브 호롤로지(Collective Horology)는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제는 독립 매뉴팩처를 중심으로 한 명망 높은 시계 리테일러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리테일 비즈니스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협업을 통한 시계를 선보이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계 팟캐스트인 ‘오픈워크: 시계 산업 내부 살펴보기(Openwork: A Look Inside the Watch Industry)’를 송출하기도 합니다. 고객 서비스와 경험에 집중하는 컬렉티브 호롤로지는 전 세계의 시계 애호가에게 독립 워치메이킹과 유명 콜라보레이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초기 프로젝트는 제니스의 의뢰를 받아 제작된 날렵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의 제니스 Chronomaster El Primero C.01 x Collective 리미티드 에디션이었습니다. 이제 10 번째 콜라보레이션 시리즈를 제작하게 된 컬렉티브가 모던 워치메이킹의 아이콘 중 하나를 재해석하기 위해 다시 한번 제니스를 찾았습니다. 기존 모델을 완벽하게 재해석하여 200 피스 한정 수량으로 선보이는 DEFY C.X 에디션을 만나보세요.

날렵하고 건축적인 라인과 독특한 실루엣을 갖춘 DEFY Skyline 은 1969 년에 출시된 최초의 제니스 DEFY 손목시계를 계승하여 탁월한 견고함과 내구성이 모던한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는 현대적인 작품으로, 최신 엘 프리메로 오토매틱 매뉴팩처 무브먼트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DEFY Skyline C.X 에디션의 경우, 각면 처리된 스틸 케이스와 교체 가능한 통합형 브레이슬릿 전체에 매트한 샌드블래스트 마감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오직 12 각형 베젤의 측면만이 폴리싱 처리되어 있습니다. 폴리싱 처리한 케이스백의 측면에서도 베젤의 가장자리에 적용된 마감 기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타임피스는 대담하면서도 절제된 분위기의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DEFY Skyline C.X 에디션의 디자인과 다이얼 레이아웃은 기능적 단순함이라는 테마를 유지하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완성되었습니다. DEFY Skyline 의 시그니처인 별이 빛나는 하늘 패턴 다이얼은 매트한 실버 그레이 컬러로 제작되었으며, 4 각 별 인그레이빙은 다이얼의 중심부에서는 깊고 외곽으로 갈수록 점차 알아지는 그라데이션 효과를 연출하여 더욱 입체적인 감각이 돋보입니다. 일반적인 DEFY Skyline 모델은 3 시 방향의 날짜창과 마주 보는 9 시 방향에 워치메이킹 분야에서 유일한 컴플리케이션인 0.1 초 인디케이터를 갖추고 있지만, C.X 에디션은 날짜창을 완전히 생략하고 0.1 초 인디케이터를 6 시 방향으로 이동시켜 보다 균형감 있고 대칭적인 디자인을 구현했습니다. 오렌지 컬러의 0.1 초 핸드 팁과 “10” 마크는 시인성이 높은 오렌지 톤으로 처리되어 20 세기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스타일을 더욱 강조합니다.

DEFY Skyline C.X 에디션은 오토매틱 고진동 칼리버인 엘 프리메로 3620 를 변형한 버전으로 구동되며, 사파이어 디스플레이 백을 통해 이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6 시 방향의 0.1 초 인디케이터는 5Hz 이스케이프먼트로 직접 구동됩니다. 타임피스를 완전히 와인딩할 경우 약 55 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며, 스톱 세컨드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정확한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이얼의 은은한 오렌지 컬러 디테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DEFY Skyline Collective 는 스틸 브레이슬릿과 더불어 스틸 폴딩 클래스프를



장착하였으며 텍스처를 살린 오렌지 컬러의 러버 스트랩이 함께 제공됩니다. 스트랩은 케이스백에 통합된 독창적인 퀵 스트랩 교체 메커니즘을 사용해 도구 없이 손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DEFY Skyline C.X Edition 모델은 200 피스로 한정 수량으로 제작되었으며, 콜렉티브 호롤로지 및 제니스 온라인 부티크에서만 만나볼 수 있습니다. 12 월 19 일부터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니스: 꿈을 향한 도전.

제니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추구하며 이를 이뤄내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1865 년 설립 이후 제니스는 최초의 수직 통합형 스위스 시계 매뉴팩처로 자리 잡았으며, 제니스 시계는 영국해협 횡단 비행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루이 블레리오(Louis Blériot)부터 성층권 자유낙하 기록을 세운 펠릭스 바움가트너(Felix Baumgartner)에 이르기까지 큰 꿈을 꾸며 불가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온 특별한 인물들과 함께해왔습니다. 제니스는 또한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는 드림허스(DREAMHERS) 플랫폼을 마련해 선구적인 여성들의 업적을 기념하고 그들에게 주목합니다.

혁신의 별을 따라 전진하는 제니스는 모든 시계에 인하우스 방식으로 자체 개발 및 제작한 무브먼트를 사용합니다. 제니스는 1969 년 세계 최초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칼리버인 엘 프리메로를 출시했으며, 계속해서 0.1 초까지 측정 가능한 Chronomaster 컬렉션과 0.01 초의 정밀성을 갖춘 DEFY 컬렉션을 통해 정밀한 고진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시간 측정 역량을 드러냈습니다. 혁신은 곧 책임을 의미합니다. 제니스 HORIZ-ON 이니셔티브는 포용성과 다양성, 지속 가능성, 직원의 복리 후생이라는 세 가지 헌신을 약속합니다. 제니스는 1865 년부터 지금까지 새로운 차원을 향한 열정적인 도전과 함께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나만의 꿈을 향해 손을 뻗을 시간입니다.

DEFY SKYLINE C.X 에디션

레퍼런스: 06.9300.3620/63.1001

핵심 사항: 엘 프리메로 쓰리핸드 시계. 고진동 인디케이터: 6 시 방향에 위치한 0.1 초 서브 다이얼. 실리콘 이스케이프 휠 및 레버. 별들이 수 놓인 하늘 패턴이 장식된 다이얼. 스크류-인 크라운. 쉽게 교체 가능한 스트랩 시스템

무브먼트: 엘 프리메로 3620 SK

진동수: 시간당 36,000 회 - 5Hz

파워 리저브: 약 55 시간

기능: 중앙에 위치한 아워 및 미닛 핸즈

6 시 방향에 위치한 0.1 초 인디케이션

마감: 새틴 마감 처리된 스페셜 로터

가격: 11,900 스위스 프랑 / 12,900 유로

소재: 스테인리스 스틸

방수: 10ATM

케이스: 41mm

크리스탈: 양면에 반사 방지 처리한 평평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백: 투명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다이얼: 별들이 수 놓인 그라데이션 하늘 패턴

아워 마커: 로둠 도금, 각면 처리 및 슈퍼 루미노바®SLN C1 코팅

핸즈: 로둠 도금, 각면 처리 및 슈퍼 루미노바 SLN C1 코팅

브레이슬릿 & 버클: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 별들이 수 놓인 하늘 패턴이 장식된 오렌지 러버 스트랩 추가 제공. 스테인리스 스틸 폴딩 클래스프.

